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중독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이 승 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본 연구는 신경증적 경향성, 내면화된 수치심과 알코올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중독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신경증적 경향성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알코올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신경증적 경향성은 알코올 중독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알코올중독자가 성격특성 중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신경증적 경향성의 예측관계를 살펴본 결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정서맥락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갖게 되어 부적 정서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신경증적 경향성이 알코올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경증적 경향성이 알코올 중독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완전매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인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경향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병리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이어져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근원적인 성격특성으로 분류되는 신경증적 경향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병리적으로 고착된 정서반응인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련한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요어 : 중독, 성격특성, 신경증적 경향성, 내면화된 수치심

* 이 논문은 이승희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승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3523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새천년빌딩 6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Tel : 042-867-0075, E-mail : nature92@hanmail.net

신화 속에서 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오랜 술의 역사와 함께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도 병리적으로 발전되었다.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알코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간질환 및 심뇌혈관질환과 같이 직접적인 신체건강 위협요소가 될 뿐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관계, 현실검증력 맥락에서 불편감을 초래하여 사회부적응을 유발하는 인지·정서·행동에서 개인 내적 기능손상을 가져온다.

알코올 중독(Alcohol addiction)

DSM-5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는 술, 담배,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중독성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을 포함한다(APA, 2013). 또한 미국의 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알코올 중독을 “음주에 편향된 특징을 가진 질환으로서 음주가 시작되면 대개 중독상태가 되어야 끝나며 만성적이고 진행적으로 재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 때문에 전형적인 신체장애, 정신장애, 직업장애, 사회부적응 등이 수반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정남운, 박현주, 2001).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현대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하는 알코올은 ‘중독’이라는 단어 사용을 대표하는 물질이 되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에게 있어서 알코올은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황폐화되어도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하게 허가된 마약과 같은 것’이 되었다.

우리말로 중독은 ‘Intoxicatuon’, ‘Addiction’ 두 가지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Intoxicatuon’은 특정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신체·정신기능에 해로운 변화가 온 상태를 말하며, ‘Addiction’은 물질을 계속 사용하고자는 행위에 대해 자기조절력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일정한 부적응적인 행동패턴(행동을 하기 전 갈망상태를 느끼며 정서적·신체적 각성이 일어나고, 행동 중 쾌락과 흥분을 느끼며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행동 후 각성 단계가 급격히 저하됨은 물론, 후회와 죄책감 등 부정정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강박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고착되는 것을 말한다. 김교현(2002, 2007, 2006a, b)은 중독을 “자신과 주위에 폐해를 초래해서 이를 조절하려 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반복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알코올 중독의 성격적 특성

알코올중독은 인지·정서·행동 및 건강 상 개인 내적인 기능손상과 함께 대인관계와 사회관계 맥락에서의 기능손상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자리한다.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생물·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분석되어 왔다.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 중 개인적인 취약성으로서 작용하는 근본적인 성격특성에 주목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의기소침하고 소외된 특성을 나타내며,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 회피하고 은둔하고자 하며, 낮은 자존감과 부적정서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적인

상황에 당면했을 때 음주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성격이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정 성격 특성이 알코올 중독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탁진국, 2000). 알코올 중독자의 특성을 살펴볼 때 부적 감정에 민감하여 불쾌한 기분, 죄책감, 자기혐오, 절망, 외로움, 거절당함 등을 쉽게 느끼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삶의 문제 해결을 외면하여 현실로부터 도피를 시도하고, 인내수준이 낮으며 충동통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내향적이며 성적(sexually)으로 억압되었다는 연구결과(김성이, 2002)를 살펴볼 때, 알코올 중독에 선행하여 특정한 성격특성이 중독의 발생과 경과, 예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주는 알코올성 성격' 특성은 의존성, 충동성, 정서적민감성, 미숙한 정서표현, 좌절감, 혼란스런 성역할 지향, 미숙함, 과도한 진지함, 우울, 불안, 죄책감, 긴장감 등의 정신적 고통과 잦은 기분변화, 신체적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고통 호소 등이다(신성만, 2012). 이와 같은 성격특성은 신경증적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격특성이 알코올중독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신경증적 경향성으로 인한 부적 정서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음주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김진훈 외, 2002; 김청송, 2003).

신경증적 경향성

인간의 미래 행동과 다양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개별적인 성격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류하고자 한 성격이론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 개인의 성격특성이 취약성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 부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

으로부터 병리적인 현상이 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격이론의 입장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중독에 취약한 성격특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인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진훈 외, 2002).

성격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성격모형인 Big Five Model 이론에서 제시하는 성격의 한 차원이 근심걱정을 하는 성향인 신경증적 경향성이다. 신경증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은 사람보다 기분변화가 심하고, 쉽게 불안, 우울해지며 사소한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이인혜, 장선주, 2001).

신경증 경향성은 '긴장된, 불안한, 흥분하기 쉬운, 초조한, 염려하는 불안정한, 걱정이 많은'으로 형용할 수 있다. 이 성격특성의 핵심 요인은 불안과 전반적인 고통으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김교현, 2002). 신경증 경향성이 높으면 의기소침하여 걱정이 많고, 만성적인 긴장과 불안에 시달리며, 충동 통제와 스트레스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까다롭고 번덕이 심하여 화를 잘 내기도 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신경증 경향성은 우울, 불안, 자책감, 낮은 자기 존중감, 긴장, 수줍음, 잦은 신체적 증상의 호소 등과 같은 부적 정서를 만성적으로 경험한다(Eysenck, 1967).

신경증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흔히 불쾌한 생활 사건들을 보다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Eysenck & Eysenck, 1991), 스트레스를 주는 내적, 외적 자극환경에 매우 정서적으로 반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만성적 긴장상태에 있게 된다(Billings & Moos, 1984).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 발생한 만성적 신경증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욕구로 인해 진정시키는 물질로서 알코올이나 진정제 등의 약물을 쉽게 사용하게 되고 이에 의존되기 쉽다. 동시에 '신경이 예민'하여 이런 자신의 높은 각성 상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욱 긴장하여 우울과 불안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Eysenk, 1967; 홍숙기, 2010).

알코올 중독자의 특성을 살펴볼 때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과민하며 과도하게 진지하며, 우울, 불안, 죄책감과 긴장감을 쉽게 느끼고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질병을 자주 호소하며 기분변화가 심한 성격특성, 즉 신경증 경향성으로 인한 부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행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

수치심(羞恥心, Shame)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는 마음'(국립국어연구원, 1999)을 말한다. 수치심은 감정과 행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정서표현으로 당혹스러움, 굴욕감, 치욕, 불명예, 수줍음 등이 있다.

수치심의 뿌리는 자기가치에 대한 의심과 확신의 부족을 나타낸다. 자기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부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치심은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서 자기(entire self)를 부정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바탕으로 경험하는 공허감과 부적절감이다(Erickson, 1971; Broucek, 1991, Barret, 1995). 수치심은 외현화된 객관적인 행동과 내면화된 주관적인 감정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의 규칙과 법을 어긴 외현화된 객관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정죄하여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내면화된 감정과 판단이 수치심이다(김용태, 2010).

Bradshaw(1988)는 인간의 유한성을 알려주어 우리가 실수할 수 없고, 타인이 도움이 필요한 인간임을 알려주었던 건강한 수치심이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전가되어 내면화 되면,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역겨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다고 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알코올중독(강현식, 2005), 사회불안(심현진, 권혜수, 2013), 우울(권희영, 홍혜영, 2010), 등을 유발하는 정신건강 위협요소가 된다(남기숙, 2008).

중독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수치심, 중독은 유의미한 이론적 상관관계가 주장되어 왔다. 수치심의 내면화에 신경증적 경향성이 영향을 끼치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성격특성과 연합하여 정신병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알코올중독의 선행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개인의 정체성이자 취약성으로 기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 내면화된 수치심과 중독이 경험적으로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본 연구는 중독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매우 큰 이론적 상관관계가 주장되어 온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중독과의 관계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신경증적 경향성, 내면화된 수치심과 알코올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신

경증적 경향성이 알코올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해 보는 데 있다. 또한 신경증적 경향성이 알코올 중독을 예측하는 데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신경증적 경향성, 내면화된 수치심, 알코올 중독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 신경증적 경향성, 내면화된 수치심, 알코올 중독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과의 관계에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가설 1. 신경증적 경향성은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신경증적 경향성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내면화된 수치심은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을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D지역 소재 신경정신과 알코올병원에 입원 중인 알코올중독 환자 90명과 D지역 알코올중독자 자조모임(A.A) 회원 및 알코올중독으로 진단 받고 재활 목적으로 지역 내 알코올상담센터를 이용 중인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은 직접 방문 및 의뢰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120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 9부를 제외한 111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중 현재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응답자는 87명(78.4%)이고, A.A 회원 및 알코올센터 회원 응답자는 24명(21.6%)이다. 최종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수집 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성 104명(93.7%), 여성 7명(6.3%)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4배 이상 많은 분포를 보였다.

둘째, 자료수집 대상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16명(14.4%), 40대 31명(27.9%), 50대 50명(45.1%), 60대 14명(12.6%)으로 50대가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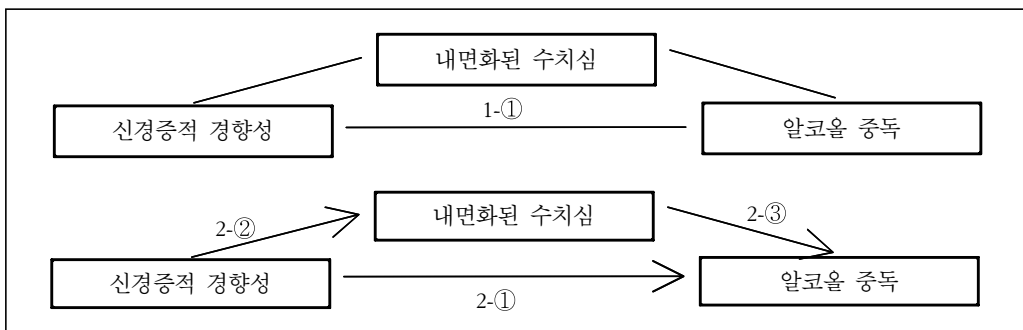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문제 1, 2의 가설적 연구모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저 연령은 31세, 최고 연령은 62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49세다.

셋째, 자료수집 대상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학 5명(4.5%), 초등졸 14명(12.6%), 중등졸 16명(14.4%), 고등 졸 49명(44.1%), 대졸 이상 27명(24.3%)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료수집 대상의 결혼형태를 살펴보면, 미혼 34명(30.6%), 기혼(배우자) 22명(19.8%), 별거 8명(7.2%), 이혼 44명(39.6%), 사별 1명(0.9%), 기타 2명(1.8%)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자료수집 대상의 연소득을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 88명(79.3%), 1,999만까지 11명(9.9%), 2,999만까지 6명(5.4%), 4,999만까지 1명(0.9%), 5,000만 이상 1명(0.9%)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International English Big-Five Mini-Markers

격 5요인 중 신경증적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International English Big-Five Mini-Markers (Thompson, 2008)'를 사용하였다. Big-Five Mini-Markers에서 성격 5요인의 상관 관계는 .70 ~ .83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를 산출한 신경증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69이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Cook이 개발하여 198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ISS 제 5판 원문을 이인숙, 최해림의 타당화 연구(2005)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를 산출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1이다.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알코올선별검사 AUDIT는 ICD-10의 진단기준으로 사용하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개발한 알코올 문제 선별도구(2003)이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를 산출한 AUDIT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8이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알코올중독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을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중독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활용했다. 이들에 따르면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먼저 변인 X가 변인 Y를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변인 X가 변인 M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야 한다. 다음 변인 X가 변인 M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방정식에 투입되어, 변인 X를 통제된 상태에서 변인 M이 변인 Y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면 변인 M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변인 X가 변인 Y를 추정한 회귀계수의 유의성 여부는 매개효과가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변인 X가 변인 Y를 추정한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주어진 모델에 완전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변인 X가 변인 Y를 추정한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면 부분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Sobel검증을 실시했으며(Soper, D.S., 2013), 모든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를 활용하여 실시했다.

결 과

먼저, 설문을 통해 얻은 111명의 데이터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계별 과정을 거쳐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인의 예측력과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신경증적 경향성, 내면화된 수치심, 알코올 중독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경증적 경향성, 내면화된 수치심, 알코올 중독 간의 상관관계

알코올중독과 신경증적 경향성, 내면화된 수치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 변인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보면, 알코올 중독과 상관

관계를 나타낸 변인은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상관계수는 .473($p < .01$)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알코올 중독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관계수는 .224($p < .05$)로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상관계수는 비교적 높은 .593($p < .01$)으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신경증 경향과 수치심의 하위 요인 중 ‘부적절감’의 상관계수는 .630($p < .01$), ‘실수불안’의 상관계수는 .382($p < .01$), ‘자기처벌’의 상관계수는 .546($p < .01$), ‘공허’의 상관계수는 .478($p < .01$)로 모두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경증적 경향성, 내면화된 수치심과 알코올 중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중독 .224($p < .01$), 부적절감 수치심과 알코올중독 .440($p < .01$), 자기처벌 수치심과 알코올중독 .361($p < .01$), 실수불안 수치심과 알코올중독 .355($p < .01$), 공허와 알코올 중독 .431($p < .01$)로, 신경증적 경향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하위 4요인, 알코올 중독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면화

표 1. 상관분석 결과

| | 1 | 2 | 3 | 3-1 | 3-2 | 3-3 |
|-------------|--------|--------|--------|--------|--------|--------|
| 1. 신경증적 경향성 | - | | | | | |
| 2. 알코올중독 | .224* | - | | | | |
| 3. 내면화된 수치심 | .593** | .473** | - | | | |
| 3-1. 부적절감 | .630** | .440** | .938** | - | | |
| 3-2. 실수불안 | .382** | .355** | .748** | .701** | - | |
| 3-3. 자기처벌 | .546** | .361** | .847** | .713** | .442** | - |
| 3-4. 공허 | .478** | .431** | .817** | .621** | .491** | .713** |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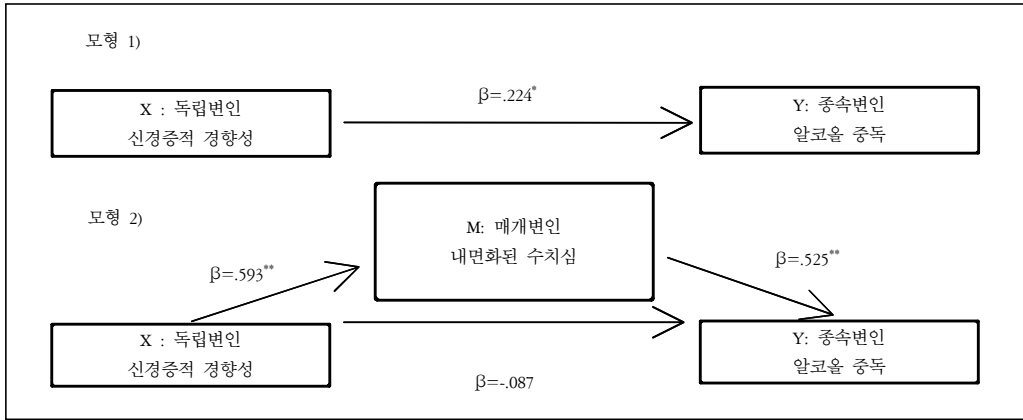


그림 2.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중독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분석

된 수치심 요인 중 ‘공허’는 신경증적 경향성 및 알코올중독과는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으나, 수치심 전체 상관 평균 .473($p < .0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알코올 중독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알코올 중독과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각 변인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의 알코올 중독 예측에 대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내면화된 수치심(전체)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단계로 독립변인인 신경증적 경향성이 종속변인이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신경증적 경향성의 단순회귀 예측모형을 살펴보면 $F = 5.778$, $p < .05$ 로 유의했는데, 이 때 신경증적 경향성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값은 .224로 나타났다. 2단계로 독립변인인 신경증적 경향성이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표 2. 신경증적 경향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측모형 검증

| 단계 | 경로 | β | t | R^2 | F |
|----|--------------------|---------|--------|-------|-----------|
| 1 | 신경증적 경향성 -> 알코올 중독 | .244* | 2.404 | .050 | 5.778* |
| 2 | 신경증적 경향성 -> 수치심 | .593*** | 7.682 | .048 | 59,020*** |
| 3 | 신경증적 경향성 -> 알코올 중독 | -.087 | -0.826 | .229 | 16.039*** |
| | 수치심 -> 알코올 중독 | .525*** | 5.003 | | |

* $p < .05$ ** $p < .01$ *** $p < .001$

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F=59.020$, $p<.001$ 로 유의했으며, 이 때 신경증적 경향성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값은 .59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로 독립변인인 신경증적 경향성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고 알코올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신경증적 경향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알코올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알코올 중독을 예측하는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2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은 22.9%로 유의했고 ($F=16.039$, $p<.001$), 내면화된 수치심이 통제된 상태에서 신경증적 경향성은 알코올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beta=-.087$, $p>.05$), 내면화된 수치심은 알코올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여($\beta=.525$, $p<.001$)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해 보았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 즉 간접효과($a \times b$)의 통계적 유의성은 간접효과의 표준오차(Sab) 비율 Z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검증하는데, 이것을 'Sobel Test'라고 한다. 점추정을 이용할 때는 |Z|가 1.96보다 크면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

독립변인인 신경증적 경향성이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종속변인인 알코올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로 유의도를 측정하였는데, Sobel test statistic = 2.17'로 |Z|가 1.96보다 크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치심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심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치심 하위요인별로 매개모형을 검증해 보았다.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의 첫 번째 하위 요인인 부적절감 수치심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2 단계로 독립변인인 신경증적 경향성이 매개변인인 부적절감 수치심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beta=.478$ 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F=32.274$, $p<.001$). 3 단계로 독립변인인 신경증적 경향성과 매개변인인 부적절감 수치심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고 알코올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모형의 설명력은 19.4%로 유의했고($F=12.987$, $p<.001$), 수치심이 통제된 상태에서 신경증적 경향성은 알코올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beta=.018$, $p>.05$), 내면화된 수치심은 알코올 중

표 3. 신경증적 경향성과 부적절감 수치심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측모형 검증

| 단계 | 경로 | β | t | R^2 | F |
|----|--------------------|---------|-------|-------|-----------|
| 1 | 신경증적 경향성 -> 알코올 중독 | .244* | 2.404 | .050 | 5.778* |
| 2 | 신경증적 경향성 -> 수치심 | .478*** | 5.681 | .228 | 32.274*** |
| 3 | 신경증적 경향성 -> 알코올 중독 | .018 | 0.185 | .194 | 12.987*** |
| | 부적절감 -> 알코올 중독 | .431*** | 4.385 | | |

* $p<.05$ ** $p<.01$ *** $p<.001$

독을 유의하게 예측하여($\beta=.431, p<.001$)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의 두 번째 하위 요인인 자기처벌 수치심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2 단계로 독립변인인 신경증적 경향성이 매개변인인 자기처벌 수치심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beta=.546$ 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F=46.347, p<.001$). 3 단계로 독립변인인 신경증적 경향성과 매개변인인 자기처벌 수치심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고 알코올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은 13.1%로 유의했고($F=8.154, p<.01$), 수치심이 통제된 상태에서 신경증적 경향성은 알코올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beta=.039, p>.05$), 내면화된 수치심은 알코올 중

독을 유의하게 예측하여($\beta=.339, p<.01$)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세 번째 하위 요인인 실수불안 수치심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2 단계로 독립변인인 신경증적 경향성이 매개변인인 실수불안 수치심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beta=.382$ 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F=18.643, p<.001$). 3 단계로 독립변인인 신경증적 경향성과 매개변인인 실수불안 수치심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고 알코올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은 13.5%로 유의했고($F=8.457, p<.01$), 수치심이 통제된 상태에서 신경증적 경향성은 알코올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beta=.104, p>.05$), 내면화된 수치심은 알코올 중독을 유

표 4. 신경증적 경향성과 자기처벌 수치심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측모형 검증

| 단계 | 경로 | β | t | R^2 | F |
|----|--------------------|---------|-------|-------|-----------|
| 1 | 신경증적 경향성 -> 알코올 중독 | .244* | 2.404 | .050 | 5.778* |
| 2 | 신경증적 경향성 -> 수치심 | .546*** | 6.808 | .228 | 46,347*** |
| 3 | 신경증적 경향성 -> 알코올 중독 | .039 | 0.364 | .131 | 8.154** |
| | 자기처벌 -> 알코올 중독 | .339** | 3.170 | | |

* $p<.05$ ** $p<.01$ *** $p<.001$

표 5. 신경증적 경향성과 실수불안 수치심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측모형 검증

| 단계 | 경로 | β | t | R^2 | F |
|----|--------------------|---------|-------|-------|-----------|
| 1 | 신경증적 경향성 -> 알코올 중독 | .244* | 2.404 | .050 | 5.778* |
| 2 | 신경증적 경향성 -> 수치심 | .382*** | 4.318 | .146 | 18,643*** |
| 3 | 신경증적 경향성 -> 알코올 중독 | .104 | 1.071 | .135 | 8.457** |
| | 실수불안 -> 알코올 중독 | .316** | 3.260 | | |

* $p<.05$ ** $p<.01$ *** $p<.001$

의하게 예측하여($\beta=.316, p<.01$)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 지금까지 제시된 결과와 같이 공허 수치심을 제외한 3가지 하위 수치심 요인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개인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경향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병리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이어져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근원적인 성격특성으로 분류되는 신경증적 경향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병리적으로 고착된 정서반응인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련한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과의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경증적 경향성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알코올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증적 경향성은 알코올 중독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알코올중독자가 성격특성 중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신경증적 경향성의 예측관계를 살펴본 결과, 신경증적 경향성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정서맥락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갖게 되어 부적 정서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신경증적 경향성이 알코올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알코올 중독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완전매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변인인 인 부적절감, 자기처벌, 실수불안이 신경증적 경향성이 알코올중독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에 거주하는 알코올 중독자 11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확대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을 알코올중독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 중인 알코올 중독자와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는 알코올 중독자, 남성과 여성 등 세부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유형화 하여 차별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신경증적 경향성, 내면화된 수치심, 알코올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들은 모두 연구대상자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설문에 응답한 자료를 통해 추정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

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평가나 객관화 된 인성검사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준거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격특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알코올 중독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과 알코올 중독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독연구 속에서 알코올 중독 등 물질중독 뿐 아니라 행위중독과 관련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루는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고 각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중독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APA (2013).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5판 (DSM-5). 서울: 학지사.
- Bradshaw 저, 김홍찬, 고영주 역 (2002). 수치심의 치유, 한국상담심리연구원.
- Capuzzi, S. 저, 신성만 외 역 (2012). 중독상담. 박학사.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성이 (2002). 약물중독총론. 서울: 양서원.
- 정남운, 박현주 (2001). 알코올 중독. 이상심리학 시리즈 10. 서울: 학지사.
- 홍숙기 (2010). 젊은이의 정신건강. 서울: 박영사.
- 강현식 (2006). 알코올 중독의 재발과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희영, 홍혜영 (2010). 중학생의 내면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 김교헌 (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59-179.
- 김교헌 (2006a). 중독과 자기조절: 인지신경과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63-105.
- 김교헌 (2006b). 도박행동의 자기조절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63-105.
- 김교헌 (2007). 중독, 그 미궁을 헤쳐 나가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677-693.
- 김용태 (2010). 사회-심리적 특성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해결. 상담학연구, 11(1).
- 김진훈 외 (2002). 기질 및 성격특성과 알코올 의존의 관련성. 중독정신의학, 6(2), 95-101.
- 김청송 (2003). 성격특질차원이 청소년 스트레스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4).
- 김현주, 홍혜영 (2013) 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 남기숙 (2008). 수치심과 자기애의 정신분석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89-907.
- 심현진, 권혜수 (2013). 대학생의 아동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

- 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인혜, 장선주 (2001). 책임지각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스트레스와 강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 탁진국 (2000).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
-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AUDIT: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Second Ed., World Health Organization.
- Barret, K. C. (1995). a Functional approach to shame and guilt. In K. Fischer & J. P. Tangney (Ed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Empirical studies of self-conscious emotions. New-York: Guilford.
- Billings, A. G.,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Broucek, F. (1991). Shame and the self. New-York: Guilford.
- Erickson, E. H. (1971). Autonomy v. shame and doubt. In H. Morris(Ed.), Guilt and Shame (pp.155-158).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91). The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s. London: Hodder & Stoughton.
- Eysenk (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l.
- Thompson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ternational English Big-Five Mini-Mark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542-48.

원 고 접 수 일 : 2017. 04. 05.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5. 20.
최종게재결정일 : 2017. 05. 27.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 tendency and alcohol addiction: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Seung-Hee Lee

Daejeon of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 tendency, internalized shame and alcohol addiction, and to test whether internalized sham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 tendency and alcohol addiction. This study showed that neurotic tenden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nalized shame and alcohol addiction, and internalized shame was media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 tendency and alcohol addict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neurotic tendency was statistically predicting alcoholism. The higher the neurotic tendency of personality traits, the more the alcoholic addiction was affected.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edictive relationship of neurotic tendency to internalized shame, the higher the neurotic tendency, the more internalized emotions are experienced and the more negative emotions are experienced. Third, the neurotic tendency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alcohol addiction, and neurotic tendency was found to be a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in predicting alcohol addiction. The higher the neurotic tendency of individu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e higher the internalized tendency to internalize the shame. This internalized shame leads to the use of pathological alcohol, leading to alcoholism. As a result,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lcoholism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neurotic tendencies classified as fundamental personality traits and efforts to develop treatment and recovery programs related to internalized shame, which are pathologically fixed emotional responses.

Key words : addiction, Personality traits, Neurotic tendency, Internalized shame